

# 평화의 새 천년을 꿈꾸며

문 난 영/세계평화 여성연합 세계회장

**찬**란한 과학문명을 꽃피우고 우리 생활에 풍요와 번영을 가져 왔던 20세기는 한편으로는 물질만능주의와 극도의 이기심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과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윤리도덕의 붕괴를 초래하여 우리의 정신문명에 큰 위기를 가져 왔다. 더구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비롯한 수많은 지역 분쟁, 인종, 종교간의 처절한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는 모두 새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는 부디 전쟁과 갈등을 청산하고 사랑과 평화가 깃들기를 열망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새 천년의 첫해 가을에 '9·11 테러사건'을 접하고는 아직도 그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구촌 곳곳에서는 여전히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지구촌 한 가족'의 평화세계는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이상일 뿐 인간에 대해 깊은 회의를 금치 못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류가 하나로서, 가까운 이웃으로서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필자가 10년째 몸담고 있는 '세계평화 여성연합'은 지난 92년 4월에 서울에서 창립된 이래 세계 120여 개국에 해외 지부를 강화하면서 여성의 힘을 모아 평화롭고 조화로운 지구촌 한 가족의 이상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특히 여성 고유의 모성애를 바탕으로 한 '참 가정'의 윤리 확립운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교

육 및 사회 봉사활동, 그리고 국가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국제적 자매결연 활동 등은 유엔으로부터도 그 실적과 노력을 인정받아 97년 5월에는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NGO 제1영역 자문기관으로 승인받기에 이르렀고, 현재 유엔 NGO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필자는 작년 한해에도 미국의 뉴욕, 워싱턴, 하와이 등에서 개최된 각종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여성의 참사랑을 통한 평화문화의 확산을 역설하였고, 대만, 일본, 터키,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의 케냐, 우간다, 르완다 등의 해외지부를 방문하여 여러 가지 현장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격려하였다.

무엇보다도 작년 5월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5차 중동 여성 지도자 평화회의'는 아랍계와 이스라엘 여성 지도자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속에 설전이 벌어져 필자는 주최측의 공동의장으로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그러나 마지막 폐회식장에서 춤과 노래로 화해와 협력의 한 마당을 이루게 되었을 때 결국 인류는 한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다.

또한 빈곤과 문맹과 AIDS와 같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 여성들과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하여 본 여성연합 자원 봉사자들이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 직업학교 및 기술 센터 등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현지 주민들의 큰 기대와 애정 속에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대견하고 감격스러웠다. 아프리카 먼 이국 땅에서 각종 풍토병과 예산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오직 어머니의 심정으로 버티고 있다는 한 일본 여성연합 자원봉사자의 손을 잡았을 때의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고, 분쟁이 심한 여러 부족들의 여성 대표들을 초청하여 자매 결연식을 베풀어주었을 때 그토록 즐거워하던 케냐, 우간다 여성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오랜 세월 가부장제 사회 구조 속에서 억압과 고통을 감수하며 쌓아온 여성들의 인내와 슬기가 무서운 잠재력을 발휘하여 한 고을, 한 나라의 밝은 희망이 되는 것을 확인하며 여성연합의 세계 회장으로서의 책임과 긍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

여성 정치인이 되어 국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행정 부처의 고위직에 앉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행정 능력을 발휘하는 일도 매우 바람직하고 보람 있는 일임엔 틀림없지만, 우리 여성들이 더욱 그 참된 가치를 발휘하고 보람을 느끼는 일은 바로, 남편과 자녀들의 사랑의 중심체가 되어 참된 가정을 만드는 일이며, 나아가 그 사랑과 봉사의 폭을 이웃과 사회를 위해 확대하여 세계평

화로 승화시켜 나가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반세기가 넘도록 냉전과 긴장 속에 여전히 지구촌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우리 조국의 평화 통일도 남성들이 주도하는 '힘'의 논리보다는 여성들의 모성애로 풀어나가는 것이 보다 소망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작년 2월 필자가 '한국 여성지도자 연합'의 회원단체 대표로 평양을 방문하고 온 뒤 더욱 굳어졌는데, 그때 우리 여성 대표단 일행 열 명은 7박 8일간 북쪽 대표들과 만나면서 처음에 가졌던 긴장과 어색함이 풀리고 우리는 역시 같은



피를 나눈 동족임을 순간순간 실감할 때가 있었다. 50년 전 6.25 전쟁 때 고향을 떠나 온 실향민의 한 사람인 필자로서는 더욱 가슴 뭉클한 순간들이었다. 언젠가 머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남북한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랑과 평화의 자매 결연 잔치를 펼치게 될 것을 염원하면서 현재 우리 세계평화 여성연합에서는 북한사랑 1%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어린이들과 여성들을 위하여 매달 1,000원씩 여성연합의 기금은행계좌로 자동 이체하는 후원 방법인데, 조국통일을 염원하고 세계평화를 갈구하는 국내외의 많은 뜻 있는 분들이 이에 호응하고 있어 크게 고무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성들의 참사랑이 평화로운 '지구촌 한 가족'의 이상 실현에 초석을 놓는 꿈을 꾸고 있다. PPF